

하다스의 심층적 의미 연구 및 한국어 번역에 관한 제언

김동열(퍼펙터즈교회)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식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 수준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국내 반려 식물 인구는 1,745만 명으로 추정되며,¹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와 같은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도 다수 배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서식지가 다른 외래 수종에 대한 이해 역시 깊어졌다. 한글 성서가 처음 번역될 때의 상황과 오늘날의 여건은 많이 변화되었다. 그런데도 현행 한글 성서는 여전히 수용자 중심의 관점으로 외래 식물을 유사한 자생종 나무의 명칭으로 표기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² 이러한 혼란과 오해를 최소화하기

1 박정희, “100년 꿈이 숲당이 되다. 임목재해보험 절실”, 「중도일보」 2023년 5월 15일,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30515010004153#google_vignette, 2025년 7월 24일 접속.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영국, 독일, 뉴질랜드와 함께 우리나라를 세계 4대 조림 국가로 선정했다.

위해서, 한글 성서의 식물 명칭에 대한 올바른 사용이 필요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나무 명칭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하다스의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고, 적절한 한글 명칭을 제시함으로써, 이 명칭이 담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살리고자 하는 시도이다.

2. 하다스의 한글·영어·독어 성서 번역 분석 및 성서 이외의 다양한 용례들

하다스(**אֲדָמָה**)³는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성경」, 「쉬운성경」,

-
- 2 「새한글성경」에서 최근 성경식물 명칭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나무로(출 23:10, 13, 23, 28; 26:15, 26, 32, 37; 27:1),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종려나무)로(출 15:727; 레 23:40; 민 33:9; 신 34:3; 삿 1:16; 삼하 6:19; 왕상 6:29, 32, 35; 7:31; 대상 16:3; 대하 3:5; 18:15, 18:15; 느 8:15; 시 92:12; 아 1:11; 7:7, 8; 사 9:14; 19:15; 겔 40:16, 22, 26, 31, 34; 41:18, 19, 20, 25, 26; 욕 1:12; 요 12:13; 계 7:9) 수정, 또는 보완했다. 그러나 아직도 신구교를 통틀어 성서에 대한 전문적인 식물 연구는 미흡하다. 기존 연구는 아래의 단행본과 논문을 참고하라. 류모세,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서울: 두란노, 2008); 김혜정, 「성경식물사전」(서울: 일진사, 2019); 정정숙, 「성서식물」(제천: 크리스찬뮤지엄, 2007); 로버트 쿵스, 「성서 속 식물들」(권성달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원제는 Robert Koops, *Each According to Its Kind: Plants and Trees in the Bible* (Swindon: United Bible Society, 2012); 오기완/오준호, 「성경 식물 이야기」(서울: 신앙과지성사, 2024); 최창모, “레마논 숲과 그 황폐화 과정에 대한 사료적 고찰”, 「한국중동학회논총」 31권 3호 (2011년 1월), 167-211; 김영숙, “성경의 식물 명칭에 대한 연구-성경번역과 주석을 위한 성서신학적 가치와 전망-”, 박사학위논문(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7); 김영숙, “이스라엘의 7대 작물의 명칭에 대한 연구”, 「가톨릭사상」 54호 (2017년 6월), 157-217; 김영숙, “대추야자나무의 명칭 문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6권 1호 (2018년), 34-44; 글라라,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서울: 부크크, 2020); 김동열, “베로쉬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204집 (2024년 봄), 41-67.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류모세가 성서의 식물에 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대한성서공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성서번역자를 위해 의욕적으로 성서의 식물에 관한 책을 번역 출간했다. 최근 약학 박사인 오기완과 그의 아들 오준호 목사가 단행본을 냈다. 또한 임봉대, 최창모, 김동열에 의해 성서의 식물에 관해 부분적으로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천주교회에서는 김영숙이 홀로 분투하고 있다. 그는 필명 글라라로 식물 관련 단행본도 출판했다.
- 3 이후 괄호 안에 히브리어 표기 없이 한글 하다스로 표기한다.

표 1. 하다스의 한국어·영어·독일어 성서 번역 비교 분석표

	화석류	도금양	소귀나무	은매화	Myrtle(Myrte)	사람 이름
개역개정	6					하닷사
새번역	5		1			하닷사
새한글성경				6		하닷사
쉬운성경	6					하닷사
현대어성경	5		1			하닷사
성경		6				하다싸
공동번역			6			하다사
JPS					6	Hadassah
CJB					6	Hadassah
KJV					6	Hadassah
NIV					6	Hadassah
NRS					6	Hadassah
Luther					6	Hadassa
Elberfelder					6	Hadassa(Myrtle)
ZB					6	Hadassa
Schlachter					6	Hadassa

「현대어성경」, 「성경」, 「공동번역」 등 한글 성서에서 은매화, 화석류, 도금양, 소귀나무로 번역된다. 구약성서 전체에서 6회 나무 명칭으로 등장하고(느 8:15; 사 41:19; 55:13; 슥 1:8, 10, 11), 페르시아 아하수어로 왕의 왕비인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으로서 1회 ‘하닷사’로 음역된다(에 2:7).

히브리어 하다스는 학명으로 미르투스 콤무니스(Myrtus communis)⁴이며, 영어 성서에서는 머틀(Myrtle),⁵ 독일어 성서에서는 미르테(Myrte)⁶

로 번역되지만, 이는 모두 동일한 식물종을 가리킨다. 그러나 한글 성서는 은매화, 화석류, 도금양, 소귀나무 등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다. 영어나 독일어 성서가 명확한 종 명칭으로 번역한 것과 비교할 때, 한글 성서의 번역어들은 독자에게 큰 혼란을 야기한다.

하다스는 성서의 식물 관련 국내 단행본에서 주로 은매화로 소개되었고, 화석류나무, 머틀 등의 이름이 병기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⁷ 「기독교대백과사전」은 이 나무의 명칭을 도금양으로 통일하여 번역했다.⁸ 도금양은 처음에 일본의 사전과 성서 식물 관련 전문서에서 최초로 사용한 이후, 여과 없이 국내에 수용된 번역어이다.⁹ 이는 남아시아 등에 서식하는 상록관목으로, 학명이 로도미르투스 토멘토사 (*Rhodomyrtus tomentosa*)이며, 하다스와는 상이한 종이다.¹⁰ 따라서 한국

-
- 4 Harold N. Moldenke, Alma L. Moldenke, *Plants of the Bible* (London: Routledge, 2002), 144; Lytton John Musselman, *Figs, Dates, Laurel, And Myrry: Plants of the Bible and the Quran* (Portland: Timber Press, 2007), 198; 쿵스, 윗글, 35; HALOT, 239; ABD II, 807. 성서 식물학의 표준적인 연구자인 몰덴케 부부, 쿵스, 무젤만에서부터, HALOT과 앵커 바이블 사전까지 하다스가 미르투스 콤포니스임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 이하 학명은 한글로 표기한다.
 - 5 아래의 두 히브리어 사전은 하다스를 단지 머틀(myrtle)이라 밝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그 나무가 학명 미르투스 콤포니스임을 말한다. BDB, 213; Ernest Klein,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Hebrew Language* (Jerusalem: Carta Jerusalem, 1987), 141.
 - 6 게제니우스는 자신의 독일어판 히브리어 사전에서 하다스를 미르테(myrte)라 밝혔다. 역시 그 나무의 수종이 미르투스 콤포니스임을 말하는 것이다. Wilhelm Gesenius, *Wilhelm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 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Leipzig: Verlag Von F.C.W. Vogel, 1820), 205.
 - 7 쿵스, 윗글, 35f; 오기완/오준호, 윗글, 83-5; 김혜정, 윗글, 74f;
 - 8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9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7), 1444.
 - 9 도금양의 번역상 혼란성에 관해서는 김영숙의 논문을 보라. 김영숙/안계복, “도금양나무(*Myrtus communis*)의 명칭문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권 2호 (2017년), 69-76.
 - 10 윗글, 73.

가톨릭교회의 「성경」이나 「기독교대백과사전」이 이 명칭을 채택한 것은 부적절하다. 일본어 성서조차 자신들이 처음에 선택한 하다스의 번역어인 ‘도금양’을 지양하고, 최근에는 학명 그대로 ‘미르투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김영숙 역시 하다스의 한국어 번역어로 ‘미르투스’를 제안한 일이 있다.¹¹ 소귀나무 역시 부적절하다. 소귀나무는 학명이 미리카 루브라(Myrica rubra)이다. 한국, 일본, 타이완, 중국 남부 등의 산지에 자생하는 상록활엽교목으로,¹² 역시 하다스와 종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한글 성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하다스의 번역어 ‘화석류’는 개신교 성서 번역에 특화된 명칭이다. 일반 식물학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글 명칭만 보면, 석류¹³와 유사한 나무로 착각할 여지가 있지만, 실은 석류와는 전혀 다른 수종이다.¹⁴ 석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림몬’(רִמּוֹן)이다. 림몬은 하다스와 명확히 구분되는 나무이다. 그런데도 구역본 「성경전서」(1911)에서는 느헤미야 8장 15절의 하다스를 실제로 ‘석류나무’로 번역했으며, 「鮮漢文 貫珠 聖經全書(선한문관주성경전서)」(1926)에서는 ‘石榴樹(석류수)’로 번역했고,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개신교 성서에 남아있다. 참고로 중국어 성서에서는 「和合本 舊新約全書」(1959)에 처음으로 석류와 유사한 ‘번석류’(番石榴) 또는 ‘번석류수’(番石榴樹)로 번역한 일이 있는데, 여기서 번석류는 구아바

11 윗글, 73,75.

12 윤혜영 외, “소귀나무 유묘의 생장, 잎 형태적 특성 및 엽록소 함량에 대한 차광 효과”, 「한국자원식물학회지」 37권 5호 (2024년), 547-554, 특히 547.

13 석류는 무화과, 포도와 함께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나무 열매이다(민 13:23; 20:5; 신 8:7, 8).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다. 모세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옷가에 석류를 수놓고, 끝단에 또 석류를 달아놓게 했다(출 28:33, 34). 또 솔로몬 성전의 기둥을 비롯하여 성전 곳곳에는 석류 장식이 있었다(왕상 7:18; 대하 3:16). 솔로몬의 왕궁 벽기둥 머리와 내부의 세부 조각에도 석류 문양의 장식이 많았다(왕상 7:20, 42).

14 김영숙/안계복, 윗글, 74.

(Guava)를 말한다. 이 영향으로 「現代中文譯本 聖經」(1995)에 하다가가 나오는 6구절을 모두 ‘번석류’로 번역한 일이 있었다. 따라서 화석류는 중국어 성서의 영향은 아니다.¹⁵

국내 단행본이나 「새한글성경」에서 소개한 은매화 역시 토종 매화의 일종으로 오해되기 쉬워 적절치 않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글 성서가 번역될 때는 수용자 중심 관점에서 외래 수종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표기했다. 이는 원문과 수용 언어 사용자 사이의 다리 놓기 작업으로서, 분명 의미가 있었다. 생소한 외래 수종을 이해할 수 없는 당시의 국내 독자를 배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화석류, 도금양, 소귀나무, 은매화와 같은 한글 번역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역사상 최초로 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테오프라스토스(θεόφραστος, 주전 약 371-287년)가 밝혔듯이, 식물은 땅과 단단하게 결합해 동물들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한 장소에서만 고유하게 자라나는 식물은 별개로 생각해야 하며, 서식지가 다른 수종을 유사한 자생종 나무와 비교 설명하려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¹⁶ 서식지가 다른 외래 수종을 국내 자생종과 유사한 이름으로 번역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나 독일어 등에서 명확하게 번역된 수종을 한글 성서에서만 자생종과 유사한 명칭으로 번역하여 정체를 모호하게 만든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성서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한국어 번역어를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잘못된 명칭의 지속적인 사용은 한글

15 윗글.

16 애너 파보르드, 「2천년 식물탐구의 역사」(구계원 역), (과주: 글항아리, 2011), 55. 원제는 Anna Pavord, *The Naming of Names: The Search of Order in the World of Plants* (New York: Bloomsbury USA, 2005).

성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성서의 메시지를 오해하게 만든다.¹⁷ 더구나 외래 수종에 대한 국내 독자의 이해 역시 처음 한글 성서가 번역될 때와는 크게 달라졌다. 원천 언어의 식물 명칭을 분명히 밝혀도 국내 독자들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문맥이 형성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유대인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나무 명칭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사용된다. 영어권에서 하다스는 머틀로 번역되는데, 머틀은 여성의 이름으로 종종 사용되었다.¹⁸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사전을 한글로 번역한 이정희는 도금양과 하다스의 독어식 번역어 미르테 두 명칭을 병기했다.¹⁹ 독어 성서 엘버펠더(Elberfelder Bibel)는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 ‘하닷사’(Hadassa) 옆에 미르테(Myrte)를 괄호 안에 병기했다. 미르테는 독일어권에서 가끔 여자 아이의 이름으로 사용된다.²⁰ 유대인 중에는 미국의 언론인 하다스 골드(Hadas Gold), 이스라엘의 배우 하다스 야론(Hadas Yaron) 등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이름(Given Name)에, 또는 미국의 고전 학자 모세 하다스(Moses Hadas), 이스라엘의 시인 에란 하다스(Eran Hadas) 등 유대인들이 자신의 성 이름(Sur Name)에 하다스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²¹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영어식 번역어 ‘머틀’이 아로마테라피

17 임봉대, “성경의 식물들 명칭 번역에 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31호 <별책>(2012년 12월), 131f.

18 Musselman, 윗글, 198. 무셀만(Musselman)은 자신의 이모 두 분 이름이 ‘머틀’이라고 밝혔다.

19 빌헬름 게제니우스,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아랍어 사전』(이정희 역), (서울:생명의말씀사, 2016), 173. 원제 William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Leipzig: Verlag Von F.C.W. Vogel, 1820).

20 Baby Vornamen, “Myrte,” <https://www.baby-vornamen.de/Maedchen/M/My/Myrte/>, 2025년 11월 29일.

21 Wikipedia, “Hadas (name)”, https://en.wikipedia.org/wiki/Hadas_%28name%29, 2025년 11월 29일 검색.

(Aromatherapy) 분야에서 에센셜 오일의 명칭으로 사용된다.²² 또한 하다스의 독어식 번역어 ‘미르테’가 음악이나 미용 분야에서 사용된다. 먼저 음악 분야에서 슈만(R. Schumann)이 결혼식 날 아침 신부 클라라에게 헌정한 가곡집 ‘미르테’(Myrten Op. 25)²³가 알려져 있다. 가곡집 미르테에 담긴 26개 곡 중 첫 곡인 ‘헌정’(Widmung)은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널리 애송된다.²⁴ 그뿐 아니라, 미르테는 서울 강남 지역 내 미용 관리 업체의 상호명으로도 사용된다.²⁵ 이와 같이 하다스는 식물 명칭이나 에스더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성서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유대인의 인명(人名)에, 더 나아가 머틀이나 미르테의 형태로 여성의 인명뿐 아니라, 아로마테라피, 음악, 미용 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 하다스가 언급되는 모든 본문의 심층적 의미 연구

신구교를 통틀어 성서의 식물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하다스의 심층적 의미를 고찰하고 한국

-
- 22 참조. Aromatherapy USA, “Myrtle Essential Oil: A Sweet-Scented Ally in Aromatherapy”, <https://www.aromatherapyusa.com/natural-healing/essential-oils/myrtle-essential-oil.html>, 2025년 11월 29일 검색.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며, 불면증과 불안, 우울감에 도움을 준다. 기타 향수로도 인기가 많고 구강청결제, 세정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 23 이성일, 「슈만 평전」(서울: 풍월당, 2020), 502. 하다스는 나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주로 결혼식에 사용되는 하다스 꽃에 주목하게 된다. 슈만이 하다스 나무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곡을 작곡한 이유는 모두 신부 클라라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 24 이 곡은 후에 리스트(F. Liszt)에 의해 피아노곡으로 편곡되었는데, 이것 역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
- 25 박수정, “미르테 박혜정 원장 ‘미르테 꽃’을 닮은 그녀를 만나다”, 「이뉴스투데이」, 2014년 9월 19일, <https://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376>, 2025년 7월 24일 검색.

어 번역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하다스는 구약성서에서 식물 명칭으로 6회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인명(人名)으로 사용된 경우까지 총 7회 언급된다고 이미 밝혔다. 이 모든 용례는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 및 유배 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는 포로기 이전의 문맥에서, 하다스가 성서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하다스가 식물 명칭으로 사용된 느헤미야서, 이사야서, 스가랴서의 구절들 역시 모두 포로기 이후의 문맥에서 기록된 것이다.²⁶ 또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의 왕비였던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이 하다스 나무의 명칭을 따라 명명된 것 역시 포로기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1) 느헤미야서 8장 15절

전통적인 입장을 따라, 에스라를 파송한 왕을 아닥사스다 1세

26 느헤미야 6장 14절에 따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 왕 즉위 12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했다면, 그때는 주전 444년이 된다. 따라서 느헤미야서 8장 15절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의 기록이다. 이사야의 경우, 그 활동 시기가 포로기 이전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학자는 이사야서 40-55장, 56-66장의 저자를 1-39장의 저자와 구별하여 각각 제2이사야, 제3이사야라 부른다. 이렇게 본다면 이사야와 별개의 인물이 포로기에서 귀환하기 직전 주전 550-540년을 배경으로 기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다스가 등장하는 이사야서 두 본문(41:19, 55:13)은 제2이사야에 해당된다. 차준희, 「6개의 키워드로 읽는 이사야서」(서울: 성서유니온, 2020), 19. 물론 이사야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공시적인 문학적인 분석에 기반을 두는 관점에서는 제2이사야, 제3이사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사야서의 기록은 후대 편집자 혹은 개작자가 자신이 전해 받은 전승을 나름대로 재구성하여 포로기 이후 시대를 반영한 후대의 산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 마빈 A. 스위니, 「예언서」(홍국평 역), (구약학입문시리즈 5;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22. 원제는 Marvin A. Sweeney, *The Prophetic Literature* (New York: Abingdon, 2005). 더구나 저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모든 논의를 뒤로 하더라도 이사야서 41장 19절과 55장 13절은 명백히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다스가 나타난 스가랴서 1장 8-11절의 환상을 소개한 스가랴는 주전 520-528년에 활동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스가랴는 바빌로니아로부터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을 상대로 활동하였다.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차준희/채홍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379. 원제는 Werner H. Schmidt,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차준희, 「열두 예언자의 영성」(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219. 재인용.

(Artaxerxes I, 기원전 465-425)로 본다면, 에스라는 기원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 시절 귀환했다.²⁷ 느헤미야 8장은 느헤미야에 의해 성벽을 완공한 후²⁸ 칠월 축제 곧 초막절²⁹에 **מַעְבַּר הַמַּיִם**(샤아르 합마임/물의 문(Water gate))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의 지도하에 새로운 성전 국가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율법책을 낭독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하다스는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식물 **אַרְבַּעַת הַמִּינִים**(아르바아트 함미님/네 종류) 중 하나이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 또한 초막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기념하며, 그 의미는 결혼 은유에서 연합과 동거와 중첩된다.

-
- 27 실은 에스라의 귀환 연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 논문은 전통적 입장을 따랐지만, 에스라를 파견한 페르시아 왕을 아닥사스다 2세로 본 대안 가설은 기원전 398년을 주장한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활동 시기를 더 근접하게 이해하려는 일부 소수의견은 기원전 428년으로 보기도 한다. 참조. 민경진,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유대역사 재구성: 기원전 458년에서 430년까지 에스라-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7집 (2018), 114-117.
- 28 김영호,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성전과 성벽 완공’에 대한 상관관계 고찰”, 「구약논단」 91집 (2024년 3월), 46-74, 특히 55, 69f. 김영호는 성벽과 성전의 의미를 분리하여 다룬 기존의 주장들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벽 완공이란 다른 아닌 성전 내외부의 완공에 대한 환유적 표현이라 했다. 따라서 성벽 완공 후 수문 앞 광장의 율법책 낭독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완공 후 새롭게 성전 국가의 헌법을 선포하는 행위가 된다.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 29 칠월 축제(느 8:14)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 오늘날 태양력으로 9월 중순-10월 중순이다. 방기민, “시편 126편 초막절 배경에서 읽기”, 「구약논단」 71집 (2019년 3월), 164. 주전 153년 태양력인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기 전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는 355일을 일 년으로 하는 태음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음력은 10년이면 태양력과 100일, 즉 3달 열흘의 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차이는 농사에 치명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윤달을 사용했다. 김영진은 예로보암이 7월 15일 대신 한 달 늦춰 8월 15일을 초막절로 정했다는 신명기 사가의 역사기술(왕상 12:31-33)은 임의적인 왕의 권한으로 윤달 선포 시기가 각각 달라졌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김영진, “예로보암의 종교개혁과 윤달(왕상 12:31-33)”, 「구약논단」 6집 (1999년 6월), 80-90.

레위기 23장 40절은 초막절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 대추야자,³⁰ 무성한 나무, 시내 버들 가지를 가져올 것을 명령했다. 실은 이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무성한 나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쉬나(Mishnah)³¹에 의하면 랍비들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에트로그 אֶתְרוֹג (에트로그/시트론(Citron))이며,³² 무성한 나무는 하다스라고 명시했다. 아르바아트 함미님에는 לולב (룰라브/대추야자)와 ערבה (아라바/시내 버들)까지 네 종류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 네 식물을 하나로 묶은 것을 룰라브라 칭하기도 한다.³³ 미쉬나는 초막절에 이 룰라브를 성

30 한글 성서의 식물명은 수용 언어에서 이해하기 쉬운 유사한 수종으로 번역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종려는 중국 원산의 야자나무와 식물로 우리나라의 제주와 남부 지방에서 식한다. 그러나 원전 언어에서 이 식물은 ‘종려’가 아니라 ‘대추야자’를 가리킨다. 참조. 쿵스, 윗글, 69-72.

31 미쉬나는 일반적으로 주후 200년경 랍비 예후다 하나시가 전해오는 구전 율법을 최종 편집한 것으로 본다.

32 미쉬나에서 에트로그라 했지만, 이 나무의 학명은 시트루스 메디카(citrus medica)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며 식물학자인 테오프라스토스에 의하면, 이 식물은 ‘페르시아 또는 메디아 사과’라고 서양 문헌에서 간접적으로 처음 언급된 나무이다. 그러나 에트로그의 원산지는 훨씬 더 동쪽의 히말라야 산기슭에 있으며, 그곳에서 페르시아만과 지중해로 다시 퍼졌다. 에트로그는 포멜로, 만다린, 파페다(유자와 카피르 라임의 선조)와 함께 전 세계 모든 감귤류의 4대 선조 중 하나이다. 에트로그는 레몬의 일종이 아니라, 레몬이 에트로그의 일종이다. 즉 에트로그가 조상이고, 레몬이 하위 변종이라는 말이다. 바빌론 강가에서 울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주전 586-516년) 에트로그를 알았고, 제2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왔으며, 이는 동전과 회당을 장식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이 과일을 묘사한 모자이크는 고대 베이트 알파(Beit Alpha) 회당의 유적과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다. Naama Barak, “10 things you didn’t know about the etrog”, *Israel* 21c, 2020년 9월 20일, <https://israel21c.org/10-things-you-didnt-know-about-the-etrog/>, 2025년 10월 3일 접속. 시트론은 과일을 맺는 데 그 모양이 레몬과 오랜지 중간 정도이며, 레몬과 아주 비슷하다. 오기완/오준호, 윗글, 147.

33 김성언 번역 주해, 「미쉬나 2: 모에드 절기」(과주: 한길사, 2024), 435-446, 특히 435, 437, 439. 원제는 Chanoch Albeck (ed.), *Festival (Sabbath and festivals) מועד (Moed)* (Mishnah 2; Jerusalem: Bialik Institute, 1953). 또한 Gemorah 35a:1을 보라. 쿵스, 윗글, 67f; 오기완/오준호, 윗글, 147f. 일부 학자는 느헤미야 8장 15절에서 하다스와 무성한 나무를 구별한 것을 근거로 하여, 무성한 나무는 하다스와 별개의 나무라 본다. 윗글, 148.

전이나 회당에 가져와 시편의 할렐 찬송을 낭송할 때 흔들고, 마지막 날에는 제단 옆 땅을 때리며 회개와 죄 제거의 상징적 행위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³⁴

레위기 23장 33-40절의 규정에 하다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느헤미야서 8장 15절의 초막절 규정에는 하다가 등장한다. 레위기 23장은 소위 성결법전으로 불리는 부분이며, 그 최종 편집 연대는 바벨론 포로기나 그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포로기 이전의 전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레위기 23장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 모세가 초막절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포로기 이전의 전승인 레위기 문맥에서 하다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점이 많다.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는 바벨론 유배 생활을 가져왔다. 그러나 헤셀에 의하면 히브리인은 약정(contract)의 세계가 아니라, 언약(covenant)의 세계에 살았다.³⁵ 그러나 언약 이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신 4:37; 10:15). 언약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사귄 가운데 사는 것이다.³⁶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종종 나타나는 결혼 은유³⁷는 언약적 회복의 교차적 구조를 보여준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배교를 음행하는 아내 고멜의 비유로 표현한다(호

34 김성언, *윳글*, 438-51.

35 아브라함 J. 헤셀, 「예언자들」(이현주 역),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15), 364. 원제는 Abraham J. Heschel, *The Prophets* (New York: Harper & Row, 1962).

36 참조, 윳글.

37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종종 결혼 은유로 표현되었다(사 54:5, 6; 렘 2-3 장; 호 1-3장; 겔 16장과 23장). 아가서 역시 풍유적 해석법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기독교인들은 결혼의 은유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나타낸다고 여겼다(엡 5:21-33).

1-3장). 예레미야 2-3장은 이스라엘을 신실하지 못한 아내로 묘사한다. 에스겔 16장은 예루살렘을 버려진 여인으로 묘사하고, 하나님이 그녀를 아내로 삼아 금과 은으로 장식했으나 결국 배신당했다고 말한다. 결혼의 파탄은 언약의 파기를 상징하며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포로기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내를 받아들이는 회복 의지를 드러낸다.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초청을 통해 언약 회복을 약속한다.

하다스는 전통적으로 결혼식에서 신부의 꽃으로 사용되었다. 하다스 꽃이 구약성서에서 포로기 이후 시대의 문맥에 비로소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끝내 포기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언약의 본질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에 기초한다. 또한 결혼 은유는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언약적 회복을 예비와 절기 속에서 재현한다. 따라서 하다스가 결혼 은유 속에서 포로기 이후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독특한 수사학 전략으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겠다.

2) 이사야서 41장 19절과 55장 13절

포로기는 분명 유례없는 고난과 시련의 시기였다. 하다스가 포로기 이후의 문맥에서만 등장했다는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나무가 가진 독특한 성격 때문이다. 하다스는 꺾이면 즉시 시드는 버드나무와 달리, 가지를 꺾어도 이틀간 생기를 유지하며, 심지어 시들더라도 물에 꽃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불멸의 상징으로 부족함이 없다.³⁸ 절망에 빠진 포로기의 유대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더 나아가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

38 류모세, 윗글, 253.

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필요했다. 이와 같이 하다스는 포로기를 통해 큰 절망과 일종의 죽음을 경험한 유대인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상징했다. 이것이 바로 하다스 나무가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이유이다.

이사야서에서 하다스는 나라의 멸망으로 절망하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소망을 제시한다. 하나님은 포로 귀환 후 광야에 백향목, 시딤,³⁹ 하다스, 들감람나무⁴⁰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을 함께 두겠다고 약속하셨다(사 41:19). 하다스를 광야나 사막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 심겠다는 이 말씀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포로 귀환 후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하다스가 짚레를 대신하여 자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사 55:13).

창세기 랍바(Bereshit Rabbah)에 따르면 백향목(에레즈)은 24종류 중 7종이 가장 좋다고 하며,⁴¹ 회복의 때에 광야와 사막에서 백향목과 같은 거목들이 자라게 된다. 한글 성서에서 잣나무로 번역된 식물은 실제로는 사이프러스(Cyprus)로 추정되며,⁴² 백향목과 유사한 거목 사이프러스⁴³가 결국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광야에는 결혼 은유의 언약적 회복을 상징하는 하다스를 심을 것이며, 짚레가 자라던 버려진 곳에서 이제 하다스가 이를 대신할 것이다. 즉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신부 이스

39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이다. 한글성서의 식물명의 번역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번역어가 많다. 립스, 윗글, 9; 김혜정, 윗글, 60f.

40 히브리어로 '에즈 쉘멘'으로서 들올리브 나무이다. 반면 올리브나무는 히브리어로 '자이트'이다. 들올리브이든 올리브이든 감람나무와는 수종이 다르다. 서식지 역시 다르다. 오기완/오준호, 윗글, 112f; 원종태,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같은 나무?", 『중앙신문』, 2017년 9월 27일, http://www.joongang.tv/news/article_View.html?idxno=3360, 2024년 11월 19일 접속.

41 Bereshit Rabbah 15:1.

42 김동열, 윗글, 48-50.

43 윗글, 50f. 잣나무 수평종 사이프러스는 백향목과 유사하다.

라엘이 유배와 고난의 시대를 겪더라도, 포로 생활은 종식될 것이며, 그 후 벌여질 하나님의 새 역사에 대한 극적인 회복의 소망을 이렇게 다채로운 경탄의 이미지로 선포했다.⁴⁴

3) 스가랴서 1장 8, 10-11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에서 하다스 나무 사이에서 있는 말을 탄 천사를 보았을 때(슌 1:8), 하다스는 골짜기 속에 심겨 있었다. 이는 하다스 나무가 실제로 골짜기나 협곡, 움푹 꺼진 지역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반영한다.⁴⁵ 또한 스가랴서의 환상은 종말론적 소망과 관련된다.⁴⁶

1장 8절의 하다스에 붙은 정관사가 스가랴와 독자들이 익히 알던 특정 장소(예: 기드론 계곡과 힌놈 계곡 교차로 주변 등 예루살렘의 낮은 지형)를 가리킨다 할지라도,⁴⁷ 스가랴는 그 골짜기를 하나님의 임재 장소나 신

44 참조. 월터 브루그만, 「예언자적 상상력」 (김기철 옮김), (서울: 복 있는 사람, 2019), 16. 원제는 Walter Brueggemann, *The Prophetic Imagination* (Minneapolis: Fortress, 2018).

45 쿵스, 윗글, 35f. LXX은 1장 8절의 하다스를 히브리어 하르(הר)의 복수형인 하림(הרים)으로 보고 산(mountain)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로스(ὄρος)의 복수형 오레온(ὄρεων)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MT로는 하닷심(הַדְּשִׁים)이다. 즉 하다스의 복수형이다. 그러나 산이라 해도, 이는 그냥 산이 아니다. 1장 8절은 ‘그들진 두 개의 산 사이’(ἀναμέσον τῶν δύο ὄρεων τῶν κατασκίων) 즉 계곡 또는 골짜기를 뜻한다고 밝히고 있다. 1장 10-11절의 하닷심 역시 오레온으로 번역했다. 1장 8절과 동일하게 하닷심이 아닌 하림으로 본 것이다. George Arthur Buttrick, *Lamentations, Ezekiel, Daniel, Twelve Prophets* (The Interpreter's Bible 6; New York: Abingdon, 1956), 1061. 그러나 LXX은 스가랴서 이외에 하다스가 등장하는 나머지 세 구절(느 8:18, 사 41:19; 55:13)에서는 이 나무를 미르시네(μυρσίνη)로 번역했다. 즉 미르투스 콤무니스로 본 것이다. T. Muraoka,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ouven: Peeters, 2009), 470.

46 윌리엄 반 게메렌, 「예언서 연구」 (채천석 옮김), (서울: 솔로몬, 2016), 293. 원제는 William A. VanGemeren,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 An Introduction to the Prophetic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1996).

47 BHS 본문에 의하면, ‘하하다심’으로 복수 명사에 정관사가 붙어있다. 이는 보통 예루살렘을 둘러싼 중요한 지형으로, 기드론 계곡, 또는 기드론 계곡과 힌놈 계곡이 만나는 교차로 주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기드론 계곡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과 올리브 산 사이에 위치한다. 힌놈 계곡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따라서 골짜기, 또는 계곡으로 불린다. 스가랴 예언자 시대에도 하다스는 그

성한 영역으로 향하는 통로로 사유했을 것이다. 일부 주석가들은 골짜기 속 하다스를 당시 미약했던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며,⁴⁸ 광야, 사막, 골짜기 등은 바빌로니아 유배와 같은 국가적 비극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다스 나무 사이에 선 천사(슌 1:10)가 네 번에 걸쳐 '다시'를 외치는 것(슌 1:17)은 부활과 완전한 회복에 대한 강한 소망을 대변한다. 하다스가 골짜기에서 잘 자랄 뿐 아니라, 이 나무들 사이에 선 자가 '다시'를 네 번에 걸쳐 외치는 스가라의 환상은, 유대인들이 어떤 고난과 시련조차도 다시 굳건한 모습으로 딛고 일어설 것이며, 부활할 것이라는 일종의 묵시 문학적인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폭스(Michael V. Fox)는 이스라엘에는 서양의 고전적 수사학 전통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문서화된 주요 수사학 운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이 좋은 예 중 하나이다. 유배의 현실을 이성의 눈으로 보면 절망밖에 없다. 수사가인 에스겔은 이 지점에서 이성보다 더 깊은 곳으로, 곧 무의식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는다. 그는 마른 뼈의 환상(겔 37:1-14)을 통해,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현실에 대한 강력한 새로운 관점 내지 새로운 감정을 갖게 한다.

그는 환상을 통해 이성의 세계에서 할 수 없는 방식의 강력한 위로를 한다. 에스겔의 권면은 유배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 아니라, 세

런 곳에서 번성했을 것이다. Hinckley G. Mitchell et al., *Haggai, Zechariah, Malachi and Jonah*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71), 118f.

48 Charles W. Carter, *The Wesleyan Bible Commentary* 3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86), 763; Matthew Henry,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4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6), 1105. 웨슬리 주석에서 스가라서를 주석한 케네스 그라이더(J. Kenneth Grider)는 명확하게 하다스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하다스가 당시의 유대 교회를 뜻한다고 보았다. 선민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구분되지 않는 유대인의 국가요 유대인의 교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다스를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든, 유대 교회로 보든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상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새로운 방식, 곧 믿음을 생산해 낸다. 그 반대가 아니라 창조적인 믿음을 생산해 내는 유대적 경전 문학은 일종의 예술이요, 이런 전략을 선택한 에스겔은 일종의 예술가라 말할 수 있다. 폭스는 이런 수사적 전략은 최면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스가랴 역시 자신의 환상을 통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성의 세계에서 할 수 없는 강력한 위로를 한다. 구약성서는 종종 이런 꿈이나 환상이라는 수사학 전략을 이용한다.⁴⁹

4) 에스더서 2장 7절

에스더 내러티브는 유배 시대의 현실 속에서 앞서 언급된 소망과 약속이 실현된 사건을 다룬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시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한 영웅이며, 그녀가 미모를 통해 왕비가 된 서사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신데렐라 이야기와 유사하게 역경 속 희망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어(또는 바빌로니아어)로 ‘별’을 의미하는 ‘이쉬타르’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그녀의 히브리 이름은 **הַדַּסָּה**(하닷사)⁵⁰이며, 이는 하다스에 여성 단수 명사 어미 아흐(הַ)가 붙은 형태이다.⁵¹ 하다스 나무의 꽃이 별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에스더의 두 이름은 모두 밤하늘의 어둠을 밝히는 별처럼 빛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나타낸다.

이 하다스의 식물 수종으로서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면 에스더서 전체 서사(敍事, narrative)를 해명할 수 있는 단서도 도출된다. 하다스는 아름다운 향을 지니나 맛은 쓴 특성을 가진다. 이와 유사하게도 에

49 Michael V. Fox, "The Rhetoric of Ezekiel's Vision of the Valley of the Bones," *HUCA* 51 (1980), 1-15.

50 역시 이후 히브리어 표기 없이 하닷사로 표기한다.

51 박미섭, 「성서 히브리어 문법」(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21), 39.

스더는 자신을 양육한 모르드개에게는 향기로운 존재였다. 그러나 대적 하만에게는 고통스러운(쓰디쓴) 존재로 작용했다.⁵² 하다스는 키가 작은 상록 관목이며, 그 꽃은 별 모양을 하고 있다. 에스더의 외모가 자신의 히브리 이름인 하다스(하닷사)와 유사하다는 가정을 수용한다면,⁵³ 그녀는 키가 작고, 피부가 희며, 상록수처럼 생기가 넘치고, 어두운 밤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나는 미모의 여인으로 추정될 수 있다.⁵⁴ 실제로 랍비 문헌인 메길라(Megillah)는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하다스에 비유하며, 그녀의 히브리 이름인 하닷사와 외모를 연관시켰다.⁵⁵

앵커바이블사전에 의하면, 하다스는 바빌로니아 용어에서도 신부(新婦)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으며,⁵⁶ 그 가지는 세례자, 결혼하는 신랑 신부,⁵⁷ 사제, 영웅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으로 제작되거나, 사망한 자의 몸에 올려지는 등, 다양한 문화적 상징성을 내포하였다. 특히 하다스 꽃

52 Esther Rabbah 6:5.

53 그러나 유대교의 유산을 존중하는 성서학자이며 정치철학자인 요람 하조니는 바빌로니아(또는 페르시아)식 이름인 에스더가 히브리식 이름인 하닷사와 동일하게 별과 같은 그의 아름다운 외모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요람 하조니, 「에스더서로 고찰하는 하나님과 정치」 (김구원 역), (서울: 홍성사, 2017), 23. 원제는 Yoram Hazony, *God and Politics in Esth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이렇게 학자에 따라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인 하닷사와 페르시아(또는 바빌로니아)식 이름인 에스더의 의미를 구분하여 이해할 때가 있다. Lewis Bayles Paton, *Esther* (ICC; Edinburgh: T&T Clark, 1976), 170; 캐롤 M. 벡텔, 「현대성서주석 에스더」 (채은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4), 66f. 원제는 Carol M. bechtel, *Esther: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2). 저자는 이것이 부적절하며, 두 명칭은 동일하게 하다스 나무와 꽃을 나타낸다고 본다.

54 정정숙은 이스라엘에서 5년간 발로 뛰면서 성서 식물을 연구했다. 그는 광주 극동 방송에서 진행하는 ‘재미있는 성경 식물 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 하다스가 다른 꽃처럼 밤에도 오므라들지 않고, 화사하고 하얗게, 어둠을 밝혀주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강조했다. 정정숙 역시 에스더 이름을 하다스 꽃의 외모와 연결시켰다. 정정숙, “재미있는 성경 식물 이야기”, https://youtube.com/watch?v=PiAr_82Xc_Q&si=kS5_Xe3CB_zWi5g_C, 2024년 9월 9일 접속.

55 Megillah 13a:12.

56 ABD II, 807.

57 하다스의 잎이나 가지, 꽃은 결혼식에 사용된다. 콥스, 윗글, 35.

은 다른 꽃들과 달리 밤에도 오므라들지 않고, 화사하고 하얗게 빛난다. 이는 에스더가 유대 민족의 멸절 위기라는 국가적 암흑기 속에서 희망의 존재로서 밝게 빛났음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하다스의 다층적인 상징성은 포로기 이후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한 식물의 차원을 넘어 회복과 재건, 그리고 언약적 관계의 소망을 제시하는 강력한 신학적 은유로 기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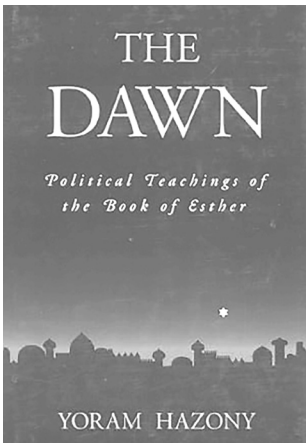


그림 1. 밤하늘의 별⁵⁸

출처: 요람 하조니 저서 표지 그림



그림 2. 하다스 꽃⁵⁹

출처: 주빌리 하의 블로그

페르시아 유배라는 어둡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 에스더서는 하다스라는 수목의 이름으로 불린 여인이 자신의 용기와 결단에 의해 어떻게 유대 민족을 멸절에서 구해내어 유대 민족의 사랑을 받았으며, 또한

58 Yoram Hazony, *The Dawn: Political Teachings of the Book of Esther* (Jerusalem: Shalem Press, 2001)의 표지 그림이다.

59 Jubilee Ha, “화석류(도금양) 나무”, <https://blog.naver.com/ujulccigu/110098138654>, 2024년 9월 9일 접속.

밤하늘의 별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었는지 증언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 종종 포그롬이나 홀로코스트의 위기를 겪었다. 이는 에스더 내러티브의 데자뷔(dejavu)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닷사라는 이름은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부활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하다스는 에스더의 이름일 뿐 아니라, 부활과 회복의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낸다. 하다스는 상록수이다. 사시사철 변함없이 푸르다. 하다스의 이름을 가진 에스더를 생각하면 먼저 이 말씀이 떠오른다.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하다스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약해져 있을지라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에 4:16) 외치며,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좋은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다스는 또한 추사 김정희가 세한도 발문에서 칭찬한 송백(松柏)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가장 추운 시절이 된 연후에도 송백과 같이 변함없이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던 추사의 제자 이상적은 하다스와 어떤 점에서 오버랩이 된다. 하다스 나무의 은유는 문학 기법으로서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이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창조의 비전은 물론 부활과 회복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과 용기를 준다.

5) 소결론: 언약적 회복의 교차적 은유

이미 언급했듯이 하다스는 신부의 꽃이다. 전통적으로 하다스는 독일에서 인기가 높았다. 머리에 착용하는 하다스 화환이 신부의 상징이 되었으며, 신랑은 하다스 꽃을 옷깃에 꽂았다. 이렇게 하다스 꽃을 사용함으로써 신랑과 신부는 앞으로 서로를 보살피고 인생을 함께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www.kci.go.kr

토세프타(Tosepta)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로 끝난 베스 파시아누스와의 전쟁 때, 산헤드린이 신랑의 머리에 장미와 하다스로 만든 월계관을 쓰는 것을 허용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⁶⁰ 게마라(Gemara)⁶¹에 의하면 랍비 예후다 바르 엘라이(Rabbi Yehuda bar Elai)가 신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다스 가지 한 개를, 랍비 슈무엘 바르 이삭(Rabbi Shmuel bar Yitzhak)은 하다스 가지 세 개를 들고 춤을 추겠다고 말한다.⁶² 결혼은 거울과 같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두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의 은유는 교차적인 은유(intersecting metaphor)⁶³이다. 하다스 꽃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적 회복의 교차적 은유가 담겨 있다.

하다스가 내포하는 다층적인 신학적 상징성, 즉 불멸성, 생명력, 그리고 포로기 이후 시대의 민족적 회복은 언약적 관계라는 핵심 주제로 집약된다. 하다스는 초막절 규정에서 룰라브 식물 중 하나로 사용되며, 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언약적 보호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이사야서의 예언은 하다스가 찔레를 대체하며 자라나는 종말론적 회복의 약속을 표명한다.

60 Tosepta Sorah 15:4. 미쉬나에 들어가지 못한 구전전승들을 바라이타(Baraita)라 한다. 미쉬나가 집대성된 지 얼마 뒤 이 바라이타가 모여 토세프타(Tosepta)가 만들어진다. 토세프타는 미쉬나의 해석을 돕는 책이다. 최중화, 「미쉬나 길라잡이」(파주: 한길사, 2024), 143.

61 율글, 21-57, 146-9. 미쉬나는 유대법 구전전승의 모음집으로, 주후 200년경 랍비 예후다 하나씨에 의해 최종 편집되었다. 게마라는 미쉬나 주석이다. 미쉬나와 게마라가 합본되어 이후 팔레스티나 탈무드(주후 400년경)와 바빌로니아 탈무드(주후 500년경)로 발전되었는데, 바빌로니아 탈무드를 더 권위 있게 여긴다.

62 Kerubot 17a:5.

63 Andre Lacocque/Paul Ricoeur, *Thinking Biblically: Exegetical and Hermeneutical Stud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301. 월터 브루그만, 「구약개론」(김은호/권대영 옮김), (서울: CLC, 2007), 475. 재인용. 원제는 Walter Brueggemann,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he Canon and Christian Imagin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3).

이러한 상징성의 정점은 하다스에서 유래된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 하닷사가 신부를 상징한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에스더는 민족 멸절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적 신부의 역할을 대행한다. 성서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은유로 빈번하게 묘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다스는 유배와 절망이라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재건될 것이라는 교차적인 희망을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이로써 하다스가 포로기 이후 시대 문맥에서만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신학적 맥락이 명확하게 해명된다.

4. 서식지 차이를 고려한 하다스의 한국어 번역어

하다스는 지중해 전역에서 자라는 아열대 식물 종이다. 이 나무는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는 여러 나라와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한 반도에서는 야생에서 자라지 않고 다만 온실에서만 키울 수 있다. 앵커바이블사전에 의하면 하다스는 이스라엘 산비탈에서 자라며,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한다. 높이 1.8-2.4m까지 자라는 작은 상록 관목이며, 빛나는 녹색 잎이 특징이다. 향기로운 흰 꽃이 피고, 잎과 줄기, 가지, 열매에서도 향기가 난다. 하다스는 블루블랙 베리(blue-black berry)라는, 블루베리와 유사한 작은 열매를 맺는다.⁶⁴ 이 나무는 원래 지중해의 중앙부, 시칠리아 남쪽, 남유럽의 몰타섬에서 인간이 살기 전부터 자생

64 ABD II, 807. 참조. Musselman, 윗글, 198. 교목은 이름 그대로 키 큰 나무이며, 관목은 키 작은 나무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땅속에서 줄기가 하나로 나오는 것이 교목이고, 줄기가 밑둥이나 땅속 부분부터 함께 나오는 나무가 관목이다. 차진성, “교목과 관목의 차이점”, <https://blog.naver.com/coffejijon/220136303256>, 2024년 9월 14일 접속.

한 식물이었다.⁶⁵ 지금은 지중해 전역, 주로 온화한 세계 각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히브리어 식물 명칭 ‘하다스’의 한국어 성서 번역 문제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그 신학적, 상징적 의미를 분석했다. 또한 하다스가 등장하는 모든 구약 본문(느헤미아서, 이사야서, 스가랴서, 에스더서)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의 배경을 가지며, 이 나무의 특성(불멸성, 생명력, 아름다운 향기)이 절망 속에서의 희망, 회복, 그리고 언약적 관계(신랑/신부)의 은유적 상징으로 사용되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인명 등에 이 나무 명칭이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되었는지 그 용례를 고찰하였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식지가 다른 하다스의 한국어 번역명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원어 음역 채택: 히브리어 음역 하다스를 주된 번역명으로 채택한다. 이미 고펜르와 같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사용한 좋은 예가 있다.⁶⁶

둘째, 보완적 설명 병기: 주석이나 각주를 통해 하다스의 학명 미르투스 콤무니스와 영어 명칭(myrtle)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식물학적 주요한 특성을 간략히 설명하여, 독자들이 하다스에 담긴 언약 회복의 교차적 은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히브리어를 음역하여 번역했을 때 첫 번째 장점은 우리는 이를 중명칭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하다스는 식물학상의 단일 수종이므로 원어 음역은 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식물학에 의해 구체

65 Stephen Mifsud, "Myrtus communis(Common Myrtle)", https://www.marz-kreations.com/WildPlants/MYRT/Myrtus_communis.php, 2024년 11월 18일 접속.

66 「개역개정」과 「새한글성경」과 영어 성서 KJV, JPS, CJB, 독어 성서 Elberfelder, ZB는 창세기 6장 14절에서 노아 방주의 재료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고펜르를 그대로 음역했다. 임봉대는 이렇게 히브리어 음역을 한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임봉대, *윇글*, 133.

적인 종 명칭이 붙어있는 식물은 오늘날 42만 2,000종(種)에 달한다. 그러나 고대의 식물명 분류 방식은 그렇게 상세하거나 정확하지 못했다. 테오프라스토스가 주전 3-4세기에 파악했던 식물의 종류는 약 500가지에 불과했다.⁶⁷ 게다가 성서에서 언급한 식물은 신구약 성서를 다 합쳐도 겨우 128종류이다.⁶⁸ 따라서 엄밀한 식물학의 분류에 따른 명칭을 고대 문헌인 성서의 식물명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하다스는 오늘날 식물학의 종 명칭으로 그대로 부를 수 있는 나무이다. 성서 식물 번역자를 위한 안내서의 저자인 콥스 역시 하다스가 단일 수종임을 명백히 했다.⁶⁹

67 파보르드, 윗글, 40.

68 ABD II, 803. 임봉대, 윗글, 132에는 약 125종이라 했다. 그러나 Alexey N. Sorokin, "Scientific methods for identification of plants mentioned in ancient texts (as exemplified by biblical phytonymics)", *Hortus Botanicus* T-14 (2019), 88을 보라. M. Zohary는 *Plants of the Bible*(1982)에서 ABD II와 같이 128종, H.N. Moldenke는 *Plants of the Bible*(1952)에서 230종, F. Nigel Hepper는 *Illustrated Encyclopedia of Bible Plants*(1992)에서 약 180종, S.M. Maillat는 *Plantes de la Bible*(1999)에서 174종이라 소개했다.

69 콥스, 윗글, 35f. 역자 권성달은 36쪽에서 "은매화가 전 세계에 적어도 3,000여종이 있으며 구아바, 유칼립투스류, 정향나무를 포함하는 거대한 도금양과(myrtaceae)의 하나이다"라 번역함으로써, 하다스 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3,000종이 있다고 오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콥스는 하다스가 학명 미르투스 콤무니스의 단일한 수종임을 분명히 밝혔다. 콥스의 원문을 주의해서 살펴보라: Myrtles are part of the gigantic Myrtaceae family that includes at least three thousand species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the guava, the eucalyptus, and the clove. 여기서 3,000종은 하다스 나무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하다스가 3,000종의 수종을 포함하는 거대한 도금양과(Myrtaceae Family)의 수종이라는 설명일 뿐이다. 식물의 계통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린네의 분류체계를 알아야 한다. 계(kingdom), 문(division), 강(class), 목(order), 과(family), 속(genus), 종(species)으로 내려갈수록 하위 류이다. 하다스가 속한 과(family)에는 100여 속, 3,000여 종이 포함된다. 그중 유칼립투스 속(genus)이 제일 유명하며, 그중 522여 종과 많은 변종이 있다. 그러나 유칼립투스 속의 나무들조차도 호주 원산으로서, 몰타섬 원산인 하다스와는 다른 종의 나무들이다. 단일 수종 하다스가 속한 도금양과에 100여속, 3,000여 종이 포함되고 있음을 밝힌 아래의 논문들과 사진을 참고하라. Hayedeh Gorjian, Nader Ghaffari Khaligh, "Myrtle: a versatile medicinal plant", *Nutrire* 48/10 (2023), 2; Francesca Giampieri et. al., "Myrtle (Myrtus communis L.) berries, seeds, leaves, and essential oils: New undiscovered natural compounds with promising health benefits", *Food Frontiers* 1/3 (2020), 276; 브리태니커 편찬위원회,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5권 (서울: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8), 30. 원제는 Hugh Chisholm et al(ed), *The*

게다가 하다스로 음역하는 것은 또 다른 장점이 있다.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인 하닷사 역시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의 낮은 계곡에서 자라나는 향기로운 작은 상록 관목인 하다스 꽃은 유배 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적 관계(신랑/신부)의 회복이라는 종말론적 소망을 표현한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번역하면 이렇게 원천 언어의 식물학상의 특징과 그 풍성한 의미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서식지에서 사용하는 종의 이름을 음역하여 번역할 때, 보완적 설명을 충분히 병기하여 독자들이 하다스의 상징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한반도에 서식하지 않는 이 나무⁷⁰의 수종 명칭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음역할 때의 난점은 이 명칭이 우리에게 생소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추가 설명을 통해 이 나무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음역한 대표적인 경우는 고펜르이다. 그러나 음역을 했을 뿐, 그 생소한 식물 명칭이 어떤 나무를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힐 수 없었다. 사실 고펜르는 창세기 6장 14절에 ‘딱 한 번 나오는’(hapex legomenon) 히브리어 단어이다. 그만큼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명확한 주장을 하기 어렵다.⁷¹ 이런

Encyclopaedia Britannica: A Dictionary of Arts, Sciences, Literature & General Information Vol.5. (London and New York: Encyclopaedia Britannica, 1926).

- 70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Myrtus communis L.," <https://www.gbif.org/species/318008> 5, 2024년 11월 18일 접속. 서식지 지도에서 짙은 진홍색 육각형은 토종이 자리 잡은 지역(Current native stands)을 나타낸다. 빨강색 육각형이 있는 곳은 원산지인 몰타섬이다. 주황색은 야생 서식 추정 지역(Probable natural range), 노랑색은 재배되어 토착화된 지역(Cultivated/naturalised range)이다. 그러나 서식지 지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자. 이 나무가 한반도에서는 서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역시 한반도는 하다스의 서식지가 아님을 밝혀준다. 브리태니커 편찬위원회, 윗글, 29.
- 71 한글 성서 중 「새번역」, 「쉬운성경」은 잣나무로, 「현대어성경」, 「성경」, 「공동번역」와 독일어 성서 Luther, Schlachter는 전나무로, NIV, NRSV, Bereshit Rabbah 31장 8절은 사

점을 감안하여 LXX은 단순히 나무를 뜻하는 그리스어 크실론(ξύλον)으로 번역했으며, 영어 성서 CEV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와 달리 하다스의 경우는 어떤 수종인지 명백하다. 그러나 하다스로 음역했을 때, 이 명칭이 식물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 명칭과 다르기 때문에, 하다스 나무와 다른 나무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한글 성서의 백향목이라는 번역어가 외래 수종을 식물학의 일반적인 수종의 이름으로 번역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난점을 보여준다. 백향목은 히브리어 에레즈의 한국어 번역어이다. 이 명칭은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글 성서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나무 명칭이며, 일반적인 식물학상의 명칭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나무들과의 상관관계와 계통을 이해할 수 없다는 약점을 지닌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새한글성경」에서는 백향목을 삼나무(백향목)로 번역했다. 한국어 번역어를 삼나무로 수정하면서 대신 괄호 안에 예전에 사용하던 백향목을 넣어줌으로써 이해를 도왔다. 하다스의 경우라면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에서 많이 사용한 화석류를 괄호 안에 넣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면 은매화로 통일하여 번역한 「새한글성경」이나 다른 용례까지 감안하여 주석이나 각주에 화석류, 은매화, 소귀나무, 도금양 등으로 번역되었던 수종임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함으로써 우리는 한국어 성서의 권위를 확보하고 독자들에게 본문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고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프러스로 번역했다. Jewish Virtual Library 역시 창세기 6장 14절의 고펀트가 사이프러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Jewish Virtual Library, "Cypress",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cypress>, 2024년 1월 17일 접속.

www.kci.go.kr

5. 나가는 말

현행 한글 성서에서 사용되는 화석류, 도금양, 은매화 등의 명칭은 하다스와 종(種) 자체가 상이함에도, 자생 수종과 유사하게 번역된 명칭이 유발하는 오해로 인해 성서 이해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히브리어 수종 명칭 하다스를 한국어로 음역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배 시대의 고난과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회복의 소망을 주는 이 나무의 독특한 성격을 부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 하닷사까지 돋보일 수 있다. 물론 조건을 붙였다. 추가 설명을 통해 하다스의 학명이나 영어와 독일어 명칭을 병기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용했던 한글 명칭들이 잘못된 번역임을 알리는 것 역시 필요하다. 하다스의 한글 명칭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하다스 나무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글라라,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 (서울: 부크크, 2020).
-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9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7).
- 김동열, “베로쉬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204 (2024), 41-67.
- 김성언 번역 주해, 「미쉬나 2: 모에드 절기」 (파주: 한길사, 2024). 원제는 Chanoch Albeck (ed.), *Festival (Sabbath and festivals) מועד (Moed)* (Mishnah 2: Jerusalem: Bialik Institute, 1953).
- 김영숙, “성경의 식물 명칭에 대한 연구- 성경번역과 주석을 위한 성서신학적 가치와 전망”,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7).
- _____, “이스라엘의 7대 작물의 명칭에 대한 연구”, 『가톨릭사상』 54 (2017.6), 157-217.
- _____, “대추야자나무의 명칭 문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6/1 (2018), 34-

- 김영숙/안계복, “도금양나무(Myrtus communis)의 명칭문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2(2017), 69-76.
- 김영진, “여로보암의 종교 개혁과 윤달(왕상 12:31-33)”, 『구약논단』 6집 (1999년 6월), 80-90.
- 김영호,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성전과 성벽 완공’에 대한 상관관계 고찰”, 『구약논단』 91집(2024년 3월), 46-74.
- 김해정, 『성경식물사전』 (서울: 일진사, 2019).
- 로버트 쿵스, 『성서 속 식물들』 (권성달 역), (서울: 대한성서교회, 2015). 원제는 Robert Koops, *Each According to Its Kind: Plants and Trees in the Bible* (Swindon: United Bible Society, 2012).
- 류모세,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08).
- 마빈 A. 스위니, 『예언서』 (홍국평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원제는 Marvin A. Sweeney, *The Prophetic Literature* (New York: Abingdon, 2005).
- 민경진,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유대역사 재구성: 기원전 458년에서 430년까지 에스라-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7집 (2018), 113-137.
- 박미섭, 『성서 히브리어 문법』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21).
- 방기민, “시편 126편 초막절 배경에서 읽기”, 『구약논단』 71집 (2019년 3월), 151-182.
-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 (차준희/채홍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원제는 Werner H. Schmidt,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 브리태니커 편찬위원회,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5권 (서울: 한국브리태니커 회사, 1998). 원제는 Hugh Chisholm et. al.(ed.), *The Encyclopaedia Britannica: A Dictionary of Arts, Sciences, Literature & General Information Vol.5*. (London and New York: Encyclopaedia Britannica, 1926).
- 빌헬름 게제니우스,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이정의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 애너 파보르드, 『2천년 식물탐구의 역사』 (구계원 역), (과주: 글항아리, 2011). 원제는 Anna Pavord, *The Naming of Names: The Search of Order in the World of Plants* (New York: Bloomsbury USA, 2005).
- 아브라함 J. 헤셸, 『예언자들』 (이현주 역),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15). 원제는 Abraham J. Heschel, *The Prophets* (New York: Harper & Row, 1962)
- 오기완/오준호, 『성경 식물 이야기』 (서울: 신앙과지성사, 2024).

- 요람 하조니, 「에스더서로 고찰하는 하나님과 정치」(김구원 역), (서울: 흥성사, 2017). 원제는 Yoram Hazony, *God and Politics in Esth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윌터 브루그만, 「구약개론」(김은호/권대영 옮김), (서울: CLC, 2007). 원제는 Walter Brueggemann,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he Canon and Christian Imagin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3).
- 윤혜영 외, “소키나무 유묘의 생장, 잎 형태적 특성 및 엽록소 함량에 대한 차광 효과”, 「한국자원식물학회지」 37/5(2024), 547-554.
- 윌리엄 반 게메렌, 「예언서 연구」(채천석 옮김), (서울: 솔로몬, 2016). 원제는 William A. VanGemen,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 An Introduction to the Prophetic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1996).
- 이성일, 「슈만 평전」(서울: 풍월당, 2020).
- 임봉대, “성경의 식물들 명칭 번역에 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년 12월), 131-142.
- 정정숙, 「성서식물」(제천: 크리스찬뮤지엄, 2007).
- 차준희, 「6개의 키워드로 읽는 이사야서」(서울: 성서유니온, 2020).
- _____, 「열두 예언자의 영성」(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최중화, 「미쉬나 길라잡이」(파주: 한길사, 2024).
- 최창모, “레바논 숲과 그 황폐화 과정에 대한 사료적 고찰”, 「한국중동학회논총」 31/3 (2011년 1월), 167-211.
- 프레드릭 W. 부쉬, 「WBC 룻기·에스더」(정일오 역), (서울: 솔로몬, 2014).
- 캐롤 M. 벡텔, 「현대성서주석 에스더」(채은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4). 원제는 Carol M. bechtel, *Esther: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2).
- 윌터 브루그만, 「예언자적 상상력」(김기철 옮김), (서울: 복 있는 사람, 2019). 원제는 Walter Brueggemann, *The Prophetic Imagination* (Minneapolis: Fortress, 2018).
- Buttrick, George A., *Lamentations, Ezekiel, Daniel, Twelve Prophets* (The Interpreter's Bible 6; New York: Abingdon, 1956).
- Carter, Charles W., *The Wesleyan Bible Commentary 3*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86).
- Fox, Michael V., “The Rhetoric of Ezekiel's Vision of the Valley of the Bones”, *HUCA* 51 (1980), 1-15.

- Freedman, David 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II (New York: Doubleday, 1992).
- Hazon, Yoram, *The Dawn: Political Teachings of the Book of Esther* (Jerusalem: Shalem Press, 2001).
- Henry, Matthew,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4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6).
- Gesenius, Wilhelm, *Wilhelm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Leipzig: Verlag Von F.C.W. Vogel, 1820).
- Giampieri, Francesca et. al., "Myrtle (*Myrtus communis* L.) berries, seeds, leaves, and essential oils: New undiscovered sources of natural compounds with promising health benefits", *Food Frontiers* 1/3 (2020), 276-295.
- Gorjian, Hayedeh, Khaligh, Nader Ghaffari, "Myrtle: a versatile medicinal plant", *Nutrire* 48/10 (2023), 2-18.
- Klein, Ernest,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Hebrew Language* (Jerusalem: Carta Jerusalem, 1987).
- Mitchell, Hinckley G. et. al., *Haggai, Zechariah, Malachi and Jonah* (ICC; Edinburgh: T&T Clark, 1971).
- Moldenke, Harold N., Moldenke, Alma L., *Plants of the Bible* (London; Routledge, 2002).
- Muraoka T.,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ouvain: Peeters, 2009).
- Musselman, Lytton John, *Figs, Dates, Laurel, and Myrrh: Plants of the Bible and the Quran* (Portland: Timber Press, 2007).
- Paton, L.B., *Esther* (ICC; Edinburgh: T&T Clark, 1976).
- Sorokin, Alexey N., "Scientific methods for identification of plants mentioned in ancient texts (as exemplified by biblical phytonimics)", *Hortus Botanicus* T-14(2019), 87-99.

검색어

성서의 식물, 서식지, 화석류, 하다스, 하닷사, 번역

[ABSTRACT]

A Study on the In-Depth Meaning of Hadas and Proposal for Its Korean Translation

Dong-Yeol Kim

Perfecters Church

This paper seeks to address and correct the inaccurate and often confusing translations of the Hebrew tree name *hadas* in various Korean Bible versions.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first compares the existing translations of *hadas* across different Bible versions (Korean, English, and German) and then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all biblical passages where the tree is mentioned.

Since the *hadas* tree is a non-native species and unfamiliar to the Korean context, this paper proposes adopting a transliterated form of the Hebrew name in the Korean text. Furthermore, we emphasize the necessity of providing supplementary explanatory notes to clarify that the scientific name of this tree is *Myrtus communis*, and that it is universally known as ‘myrtle’ in English and ‘myrte’ in German. It is also essential to unequivocally state that the various traditional Korean names used previously for *hadas* are scientifically inaccurate mistranslations.

This research aims to highlight more effectively the tree’s nature as a profound symbol of hope and restoration amid the hardships and despair of the exile period. Moreover, connecting the Hebrew name of Esther (*Hadassah*) to the tree’s characteristics allows the intersecting metaphor of marriage between the bride and groom to be brought to prominence.

www.kci.go.kr

Ultimately, this proposal for the accurate Korean nomenclature of hadas will contribute to a more precise and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biblical text.

key words

Plants in the Bible, Habitat, Hadas, Hadassah, Translation

투고일: 2025년 10월 20일

심사일: 2025년 12월 09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2월 22일

www.kci.go.kr